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7호 [루게 제24580호] 주제103(2014)년 6월 16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흙 7련대 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 16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흙 7련대 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 16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인 룩군 대장 변인선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인 해군상장 김명식동지, 조선인민군 제 597대련 합부대 부대장 해군소장 진철수동지, 부대정치위원 해군소장 남찬학동지를 비롯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부대를 여러차례 다녀가시며 남기신 귀중한 사적물과 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잠수함부대를 창설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불과 몇척의 전투함



선을 가지고 조직된 군부대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대잠수함기지로 전변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 해병들에게 부대의 연혁사를

잘 알려주어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평군업적이 아로새겨져있는 초소에서 복무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싸움준비완성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중종합훈련실에서 어뢰돌격훈련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내훈련을 보신 다음 잠수함 748호의 내부격실들을 돌아보시고 직접 실동훈련을 승선지도 하시였다.

당과 혁명을 목숨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결사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상중앙위원회를 무숨으로 사수하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 7련대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 16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준엄한 바다싸움에서의 승리는 훈련을 통하여 마련된다는 자각을 안고 실지전투를 가상한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완성하는데 기초하여 지휘관들의 해상 및 수중작전 조직지휘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훈련을 강도높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적을 잘 아는것과 함께 자기들이 활동하게 될 작전수역을 환히 꿰뚫고 제기될수 있는 정황을 미리 예견하여 합리적인 전투방안

을 수립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과 해병들이 실전과 같은 정황속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함으로써 주체적인 해상 및 수중전법에 정통하며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과 해병들이 우리 조국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가장스러운 원수들의 실체를 똑똑히 알고 오직 싸움할 생각으로 가슴 불태우며 싸움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우리는 당의 출항명령을 기다린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부대에 백두산훈련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함으로써 모든 해병들을 만능해병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우리 조국의 바다에 기여드는 적함선들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놓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식당, 잠수함 730호 해병들의 병실, 교양실들을 돌아보시면서 해병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은 늘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해병들에게 훌륭한 물질문화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부대 잠수함해병들의 생활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장병들이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잠수함 730호와 748호에 상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부르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해병들에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군부대 해병들은 몸소 초소에 찾아오시여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결전의 그날이 오면 한 몸그대로 어뢰가 되어 원수들을 검푸른 바다속에 모조리 수장해버릴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 중 흠 7련대 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 16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은 7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보도망은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평양시 사동구역 장전남새전립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여러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 및 개건한 남새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에서 남새온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장려하라고 하는것은 인민들이 한겨울에도 오이, 도마도, 숙자, 부추와 같은 신선한 남새를 늘 먹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남새온실을 풀을 들여 꾸러놓았다고 해도 재배기술을 발전시키고 남새종자보장대책을 따라세우지 못하면 실질적인 덕을 보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온실남새재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민망, 국제방송망,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보도망은 또한 김정은령도자께서 기상수문국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종합예보실, 국내통신실, 국제위성통신실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상기후조건을 과학적으로 밝히며 일기예보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정확히 보장하자면 기상수문국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연구사, 예보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단기, 중기, 장기예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의 자연지리특성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종 관측망들을

잘 배치하고 기상관측설비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민망, 로씨야의 인터넷잡지 《한베르저널》과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편대성 그루바, 반《세계화》운동,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 국제연합 인터넷포럼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8돐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는데 대해 전하였다.

라오스통신,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포럼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광일종합가공공장을 돌아보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 라오스, 로씨야, 지역기구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백두산밀영고향집 방문, 편지채택모임 진행

【삼지연 6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원들이 15일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하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폐부로 절감하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편지채택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망동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편지에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 75돐에 즈음하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데 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영광의 보고, 총정의 보고를 올리였다.

그들은 답사행군의 나날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배우로 절감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따라 백두산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올리는 편지가 영원한 승리의 길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였다고 아뢰이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명결사용위 정신을 이어받은 새 세대들이 있는 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그들은 백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끝까지 완성될것이라고 하면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 75돐에 즈음하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학습한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온 나라에 학습열풍, 최첨단들과의 열풍을 일으키는데서도 앞장서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총포성속에서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백두산밀영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이날 새벽 그들은 백두산에서 밝아오는 새날을 맞이하였다.

백두산출출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백두산에 올라 거연히 솟아있는 천만산악과 아득히 열

쳐진 밀림의 장쾌한 광경에 답사행군대원들은 온몸이 불타오르고 청춘의 슬기와 용맹이 융솟솟치는것만 같이 저마다 기발을 흔들고 서로서로 열싸인으며 《만세!》의 환호성을 터쳤다.

답사행군대원들은 백두산정에서 철새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주체의 혈통을 대를 이어 끝까지 이어나갈 청년전위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2 000명대합창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를 진행하였다.

영생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등을 힘차게 부르는 그들의 우렁찬 노래소리가 백두의 산발들에 메아리쳐갔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 펼쳐 간다

5월 1일 경기장 개건보수공사장에서

기술혁신으로 완공의 날을 앞당긴다

풍치수려한 플라자에 자리잡고있는 기념비적건축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있다.

5월 1일경기장! 위대한 대원들이 불멸의 영도업적 이 소중히 아로새겨져 있고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더불어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는 웅장한 이 건축물이 눈부시게 변모되고있다. 조선속도창조의 기상이 힘있게 내뿜고있는 이곳 건설장에는 속도전 청년돌격대지도국의 청년돌격대원들도 있다.

지난 몇달동안 이곳 청년돌격

대원들이 강행군정신으로 돌파한 전투기록도 좋다. 더우기 8월 중순까지 목표로 내세웠던 개건전투가 6월까지면 기본적으로 끝나게 된다! 이 얼마나 자랑할만 한 일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조국을 빛내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앞에는

방대한 전투목표가 제시되었다. 작업량은 몇동의 고층건물을 일떠세우는것과 맞먹고 공사의 질은 우리의 문명을 대표할수 있도록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하였다. 정해진 시간은 불과 몇달.

지하와 지상, 아스라한 공중에서 립체전, 전격전, 섬멸전을 들이대야 하였다.

정해진 시간과 작업량에 비해 로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랐다. 주력인 1려단의 실정을 놓고 보아도 많은 로력을 보충받아야 할 형편이었다. 8려단의 경우에

는 1려단의 절반 남짓하였다.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공사지휘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파스한 불같은 오기를 가다지 않고 예정날자보다 훨씬 앞당겨 착공하였다.

어느 단위가 우승하는가를 판가름하는 미장전투에서 한중, 한중의 모래는 싸우는 고지의 탄약과도 같았다. 김충현동무를 비롯한 1려단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의 고심어린 탐구속에 새로운 모래재가 창안되였다.

그러하여 날이 갈수록 열, 백점음을 단숨에 넘어넘는 새로운 속도가 창조되게 되었다. 한명의 돌격대원이 1려단의 하루미장작업에 필요한 모래를 원만히 보장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공사장의 기술일꾼들이 다 모여 왔다는 이야기가 그 사연을 말해주고있다.

그후 1려단과 8려단에서는 합리적인 블록성형기를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수십종의 기술혁신 및 창의고안들을 만들어내며 공사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갔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건만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새긴 정신력의 강자됨만이 창조할수 있는 지대한 현실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명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근에 조국강산을 걷잡지키며 려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산물입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강화해나가는 데서 주춧돌이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앞에는

빠게 나이던 병사가 달려가 종이말이를 쫓는다. 그 하나하나의 나사구멍에 자그마한 티라도스머틀세라 정성을 바치는 군인들의 깨끗한 마음이 그 작은 세부에 그대로 비친다.

이 기세로 나가면 오늘도 200%는 문제없다면서 구분대지휘관은 안전모를 꼭 눌러쓰고 긴장한 눈빛으로 섬없이 일손을

무를 해대는 전투원들의 일손에서 불이 이는듯있다. 남달리 일솜씨가 빨라 앞서나가는 함수남동무를 가리키며 지휘관인 장영삼동무가 하는 자랑 또한 끝이 없다. 아들이며 가사지기도 전인 어머수며부러 작업장에 달려나와 일손을 잡는 그를 공사장에서 모른다는 사람이 없다 한다.

들으수록 가슴 뭉클하고 바라볼수록 불이 번쩍 나게 단숨에 일을 해내는 위훈장자들의 열정을 엿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지시라면 신안칼이 떨어지거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거나 내려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는 군관 고경학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전투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전투임무는 바다갈기용화강적대기작업을 전투부대로는 보지않는다. 그렇게 되면 15일동안에 수행하게 되었던 작업을 4일안에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4층작업장으로 우리를 이끌

어마한 조선인민군 주영호소속부대의 전투장을 찾았던 우리는 <단숨에>의 노래를 이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주는 군인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

제스룩한 해병이 데저를 뜨고 돌아오는 한 낮이었다.

경계장의 벽면에서는 수직주철발판들이 여기저기에 오르내리고 화강석재는 다듬는 마지소리, 일손을 다그치며 부르는 군인들의 노래소리가 온 건설장을 들들다놓으며 메아리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지시라면 신안칼이 떨어지거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거나 내려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는 군관 고경학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전투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전투임무는 바다갈기용화강적대기작업을 전투부대로는 보지않는다. 그렇게 되면 15일동안에 수행하게 되었던 작업을 4일안에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4층작업장으로 우리를 이끌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아픈한 일이 아닐수가 없었다.

특히 리현수동무를 비롯한 8려단의 지휘관들은 력량이 적은 조건에 맞게 기능이 높은 청년돌격대원들을 미장전투의 앞장에 내세우고 기술혁신으로 말한 전투임무를 최단기간에 수행할 목표를 내세웠다.

어느 단위가 우승하는가를 판가름하는 미장전투에서 한중, 한중의 모래는 싸우는 고지의 탄약과도 같았다. 김충현동무를 비롯한 1려단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의 고심어린 탐구속에 새로운 모래재가 창안되였다.

그러하여 날이 갈수록 열, 백점음을 단숨에 넘어넘는 새로운 속도가 창조되게 되었다. 한명의 돌격대원이 1려단의 하루미장작업에 필요한 모래를 원만히 보장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공사장의 기술일꾼들이 다 모여 왔다는 이야기가 그 사연을 말해주고있다.

그후 1려단과 8려단에서는 합리적인 블록성형기를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수십종의 기술혁신 및 창의고안들을 만들어내며 공사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갔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건만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새긴 정신력의 강자됨만이 창조할수 있는 지대한 현실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명천

조선인민군 김금철소속부대에서

마다에서 모든 병사들을 무슨 일을 맡겨주어도 손색없이 해낼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노력을 다했다.

여기에서 힘을 넣은것은 신입병사때부터 품을 들으며 다기능으로 키워내자는것이였다.

이곳 지휘관들은 기능이 높고 경험이 많은 구대원들을 위주로 본격적으로 일련을 벌려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렵고 힘든 길을 스스로 택하였다.

레이를 위한 오늘에 살며 청년책임, 만년보장이 병사대중의 구호로 내뿜어주시고 계신것이였다.

신입병사들도 다기능공이 되어야 그만큼 부대의 전투력이 높아진다것이 이곳 지휘관들의 확고한 견해였다.

<군인의 직무는 서로 다를수 있지만 기술기능수준에서는 등 급차이가 있을수 없다. 최상의 질을 보장하는 병사만이 진정한 애국자이다.>

부대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며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부대지휘관들인 류화철, 최홍철동무들은 모든 구대원의 지휘관들이 신입병사들에게 들어가 작업포로배 배워주고 안목도 키워주면서 첫걸음을 내딛게 하도록 애를 썼다.

신입병사들이 직접 미장도 하게 하고 타일붙이기를 비롯한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작업과제

를 맡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작업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으로 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부단한 반복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경험과 교훈을 쌓게 하였다.

구대원들의 신입병사들이기에 단기집중경도 조직하여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부대지휘관들의 진지하고 엄격한 기술지도와 병사들의 피나는 노력은 날이 갈수록 은을 냈다.

전지불발에 의한 질검사방법, 이것은 청년책임, 만년보장의 구호를 실천으로 새겨주고 있는 이곳 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산물이다.

이 검사방법은 지금 다른 시공단위들에게 널리 도입되였다. 이 하나의 평범한 사실을 높이고 질을 찾자리에 놓고 만년대계의 건축물에 자그마한 광선의 티도 없게 하려고 아갈라를 애쓰는 부대지휘관들과 병사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수 있다.

오늘 정평일, 리복남소속구분대를 비롯한 부대의 전체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5월 1일 경기장을 천년, 만년이 흘러도 영원히 빛을 뿌릴 만년대계의 창조물도 훌륭히 일떠세울것을 엄밀하고 하후하루를 창조와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근에 조국강산을 걷잡지키며 려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산물입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강화해나가는 데서 주춧돌이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앞에는

빠게 나이던 병사가 달려가 종이말이를 쫓는다. 그 하나하나의 나사구멍에 자그마한 티라도스머틀세라 정성을 바치는 군인들의 깨끗한 마음이 그 작은 세부에 그대로 비친다.

이 기세로 나가면 오늘도 200%는 문제없다면서 구분대지휘관은 안전모를 꼭 눌러쓰고 긴장한 눈빛으로 섬없이 일손을

무를 해대는 전투원들의 일손에서 불이 이는듯있다. 남달리 일솜씨가 빨라 앞서나가는 함수남동무를 가리키며 지휘관인 장영삼동무가 하는 자랑 또한 끝이 없다. 아들이며 가사지기도 전인 어머수며부러 작업장에 달려나와 일손을 잡는 그를 공사장에서 모른다는 사람이 없다 한다.

들으수록 가슴 뭉클하고 바라볼수록 불이 번쩍 나게 단숨에 일을 해내는 위훈장자들의 열정을 엿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지시라면 신안칼이 떨어지거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거나 내려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는 군관 고경학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전투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전투임무는 바다갈기용화강적대기작업을 전투부대로는 보지않는다. 그렇게 되면 15일동안에 수행하게 되었던 작업을 4일안에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4층작업장으로 우리를 이끌

어마한 조선인민군 주영호소속부대의 전투장을 찾았던 우리는 <단숨에>의 노래를 이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주는 군인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

제스룩한 해병이 데저를 뜨고 돌아오는 한 낮이었다.

경계장의 벽면에서는 수직주철발판들이 여기저기에 오르내리고 화강석재는 다듬는 마지소리, 일손을 다그치며 부르는 군인들의 노래소리가 온 건설장을 들들다놓으며 메아리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지시라면 신안칼이 떨어지거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거나 내려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는 군관 고경학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전투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전투임무는 바다갈기용화강적대기작업을 전투부대로는 보지않는다. 그렇게 되면 15일동안에 수행하게 되었던 작업을 4일안에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4층작업장으로 우리를 이끌

조선인민군 김금철소속부대에서

마다에서 모든 병사들을 무슨 일을 맡겨주어도 손색없이 해낼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노력을 다했다.

여기에서 힘을 넣은것은 신입병사때부터 품을 들으며 다기능으로 키워내자는것이였다.

이곳 지휘관들은 기능이 높고 경험이 많은 구대원들을 위주로 본격적으로 일련을 벌려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렵고 힘든 길을 스스로 택하였다.

레이를 위한 오늘에 살며 청년책임, 만년보장이 병사대중의 구호로 내뿜어주시고 계신것이였다.

신입병사들도 다기능공이 되어야 그만큼 부대의 전투력이 높아진다것이 이곳 지휘관들의 확고한 견해였다.

<군인의 직무는 서로 다를수 있지만 기술기능수준에서는 등 급차이가 있을수 없다. 최상의 질을 보장하는 병사만이 진정한 애국자이다.>

부대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며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부대지휘관들인 류화철, 최홍철동무들은 모든 구대원의 지휘관들이 신입병사들에게 들어가 작업포로배 배워주고 안목도 키워주면서 첫걸음을 내딛게 하도록 애를 썼다.

신입병사들이 직접 미장도 하게 하고 타일붙이기를 비롯한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작업과제

를 맡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작업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으로 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부단한 반복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경험과 교훈을 쌓게 하였다.

구대원들의 신입병사들이기에 단기집중경도 조직하여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부대지휘관들의 진지하고 엄격한 기술지도와 병사들의 피나는 노력은 날이 갈수록 은을 냈다.

전지불발에 의한 질검사방법, 이것은 청년책임, 만년보장의 구호를 실천으로 새겨주고 있는 이곳 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산물이다.

이 검사방법은 지금 다른 시공단위들에게 널리 도입되였다. 이 하나의 평범한 사실을 높이고 질을 찾자리에 놓고 만년대계의 건축물에 자그마한 광선의 티도 없게 하려고 아갈라를 애쓰는 부대지휘관들과 병사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수 있다.

오늘 정평일, 리복남소속구분대를 비롯한 부대의 전체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5월 1일 경기장을 천년, 만년이 흘러도 영원히 빛을 뿌릴 만년대계의 창조물도 훌륭히 일떠세울것을 엄밀하고 하후하루를 창조와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적정으로 육박하는 공격적인 기상인양 군인건설자들이 펼치는 합력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이곳 건설장에 울려 퍼지는 벽간 숨결에서 노래소리가 높은 곳에 반드시 혁명소리가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옥같은 명언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그렇다. 시대의 정신이 뜨겁게 맥박치는 여기, 진격의 노래소리 높은 곳에 조선인민군 주영호소속부대 전투장에서 비상한 공격속도가 창조되고있고 소리지르고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근에 조국강산을 걷잡지키며 려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산물입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강화해나가는 데서 주춧돌이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앞에는

빠게 나이던 병사가 달려가 종이말이를 쫓는다. 그 하나하나의 나사구멍에 자그마한 티라도스머틀세라 정성을 바치는 군인들의 깨끗한 마음이 그 작은 세부에 그대로 비친다.

이 기세로 나가면 오늘도 200%는 문제없다면서 구분대지휘관은 안전모를 꼭 눌러쓰고 긴장한 눈빛으로 섬없이 일손을

무를 해대는 전투원들의 일손에서 불이 이는듯있다. 남달리 일솜씨가 빨라 앞서나가는 함수남동무를 가리키며 지휘관인 장영삼동무가 하는 자랑 또한 끝이 없다. 아들이며 가사지기도 전인 어머수며부러 작업장에 달려나와 일손을 잡는 그를 공사장에서 모른다는 사람이 없다 한다.

들으수록 가슴 뭉클하고 바라볼수록 불이 번쩍 나게 단숨에 일을 해내는 위훈장자들의 열정을 엿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지시라면 신안칼이 떨어지거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거나 내려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는 군관 고경학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전투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전투임무는 바다갈기용화강적대기작업을 전투부대로는 보지않는다. 그렇게 되면 15일동안에 수행하게 되었던 작업을 4일안에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4층작업장으로 우리를 이끌

어마한 조선인민군 주영호소속부대의 전투장을 찾았던 우리는 <단숨에>의 노래를 이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주는 군인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

제스룩한 해병이 데저를 뜨고 돌아오는 한 낮이었다.

경계장의 벽면에서는 수직주철발판들이 여기저기에 오르내리고 화강석재는 다듬는 마지소리, 일손을 다그치며 부르는 군인들의 노래소리가 온 건설장을 들들다놓으며 메아리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지시라면 신안칼이 떨어지거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거나 내려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는 군관 고경학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전투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전투임무는 바다갈기용화강적대기작업을 전투부대로는 보지않는다. 그렇게 되면 15일동안에 수행하게 되었던 작업을 4일안에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4층작업장으로 우리를 이끌

조선인민군 김금철소속부대에서

마다에서 모든 병사들을 무슨 일을 맡겨주어도 손색없이 해낼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노력을 다했다.

여기에서 힘을 넣은것은 신입병사때부터 품을 들으며 다기능으로 키워내자는것이였다.

이곳 지휘관들은 기능이 높고 경험이 많은 구대원들을 위주로 본격적으로 일련을 벌려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렵고 힘든 길을 스스로 택하였다.

레이를 위한 오늘에 살며 청년책임, 만년보장이 병사대중의 구호로 내뿜어주시고 계신것이였다.

신입병사들도 다기능공이 되어야 그만큼 부대의 전투력이 높아진다것이 이곳 지휘관들의 확고한 견해였다.

<군인의 직무는 서로 다를수 있지만 기술기능수준에서는 등 급차이가 있을수 없다. 최상의 질을 보장하는 병사만이 진정한 애국자이다.>

부대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며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부대지휘관들인 류화철, 최홍철동무들은 모든 구대원의 지휘관들이 신입병사들에게 들어가 작업포로배 배워주고 안목도 키워주면서 첫걸음을 내딛게 하도록 애를 썼다.

신입병사들이 직접 미장도 하게 하고 타일붙이기를 비롯한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작업과제

를 맡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작업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으로 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부단한 반복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경험과 교훈을 쌓게 하였다.

구대원들의 신입병사들이기에 단기집중경도 조직하여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부대지휘관들의 진지하고 엄격한 기술지도와 병사들의 피나는 노력은 날이 갈수록 은을 냈다.

전지불발에 의한 질검사방법, 이것은 청년책임, 만년보장의 구호를 실천으로 새겨주고 있는 이곳 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산물이다.

이 검사방법은 지금 다른 시공단위들에게 널리 도입되였다. 이 하나의 평범한 사실을 높이고 질을 찾자리에 놓고 만년대계의 건축물에 자그마한 광선의 티도 없게 하려고 아갈라를 애쓰는 부대지휘관들과 병사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수 있다.

오늘 정평일, 리복남소속구분대를 비롯한 부대의 전체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5월 1일 경기장을 천년, 만년이 흘러도 영원히 빛을 뿌릴 만년대계의 창조물도 훌륭히 일떠세울것을 엄밀하고 하후하루를 창조와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적정으로 육박하는 공격적인 기상인양 군인건설자들이 펼치는 합력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이곳 건설장에 울려 퍼지는 벽간 숨결에서 노래소리가 높은 곳에 반드시 혁명소리가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옥같은 명언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그렇다. 시대의 정신이 뜨겁게 맥박치는 여기, 진격의 노래소리 높은 곳에 조선인민군 주영호소속부대 전투장에서 비상한 공격속도가 창조되고있고 소리지르고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근에 조국강산을 걷잡지키며 려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산물입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강화해나가는 데서 주춧돌이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앞에는

빠게 나이던 병사가 달려가 종이말이를 쫓는다. 그 하나하나의 나사구멍에 자그마한 티라도스머틀세라 정성을 바치는 군인들의 깨끗한 마음이 그 작은 세부에 그대로 비친다.

이 기세로 나가면 오늘도 200%는 문제없다면서 구분대지휘관은 안전모를 꼭 눌러쓰고 긴장한 눈빛으로 섬없이 일손을

무를 해대는 전투원들의 일손에서 불이 이는듯있다. 남달리 일솜씨가 빨라 앞서나가는 함수남동무를 가리키며 지휘관인 장영삼동무가 하는 자랑 또한 끝이 없다. 아들이며 가사지기도 전인 어머수며부러 작업장에 달려나와 일손을 잡는 그를 공사장에서 모른다는 사람이 없다 한다.

들으수록 가슴 뭉클하고 바라볼수록 불이 번쩍 나게 단숨에 일을 해내는 위훈장자들의 열정을 엿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지시라면 신안칼이 떨어지거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거나 내려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는 군관 고경학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전투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전투임무는 바다갈기용화강적대기작업을 전투부대로는 보지않는다. 그렇게 되면 15일동안에 수행하게 되었던 작업을 4일안에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4층작업장으로 우리를 이끌

어마한 조선인민군 주영호소속부대의 전투장을 찾았던 우리는 <단숨에>의 노래를 이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주는 군인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

제스룩한 해병이 데저를 뜨고 돌아오는 한 낮이었다.

경계장의 벽면에서는 수직주철발판들이 여기저기에 오르내리고 화강석재는 다듬는 마지소리, 일손을 다그치며 부르는 군인들의 노래소리가 온 건설장을 들들다놓으며 메아리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지시라면 신안칼이 떨어지거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거나 내려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는 군관 고경학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전투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전투임무는 바다갈기용화강적대기작업을 전투부대로는 보지않는다. 그렇게 되면 15일동안에 수행하게 되었던 작업을 4일안에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4층작업장으로 우리를 이끌

조선인민군 김금철소속부대에서

마다에서 모든 병사들을 무슨 일을 맡겨주어도 손색없이 해낼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노력을 다했다.

여기에서 힘을 넣은것은 신입병사때부터 품을 들으며 다기능으로 키워내자는것이였다.

이곳 지휘관들은 기능이 높고 경험이 많은 구대원들을 위주로 본격적으로 일련을 벌려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렵고 힘든 길을 스스로 택하였다.

레이를 위한 오늘에 살며 청년책임, 만년보장이 병사대중의 구호로 내뿜어주시고 계신것이였다.

신입병사들도 다기능공이 되어야 그만큼 부대의 전투력이 높아진다것이 이곳 지휘관들의 확고한 견해였다.

<군인의 직무는 서로 다를수 있지만 기술기능수준에서는 등 급차이가 있을수 없다. 최상의 질을 보장하는 병사만이 진정한 애국자이다.>

부대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며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부대지휘관들인 류화철, 최홍철동무들은 모든 구대원의 지휘관들이 신입병사들에게 들어가 작업포로배 배워주고 안목도 키워주면서 첫걸음을 내딛게 하도록 애를 썼다.

신입병사들이 직접 미장도 하게 하고 타일붙이기를 비롯한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작업과제

를 맡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작업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으로 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부단한 반복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경험과 교훈을 쌓게 하였다.

구대원들의 신입병사들이기에 단기집중경도 조직하여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부대지휘관들의 진지하고 엄격한 기술지도와 병사들의 피나는 노력은 날이 갈수록 은을 냈다.

전지불발에 의한 질검사방법, 이것은 청년책임, 만년보장의 구호를 실천으로 새겨주고 있는 이곳 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산물이다.

이 검사방법은 지금 다른 시공단위들에게 널리 도입되였다. 이 하나의 평범한 사실을 높이고 질을 찾자리에 놓고 만년대계의 건축물에 자그마한 광선의 티도 없게 하려고 아갈라를 애쓰는 부대지휘관들과 병사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수 있다.

오늘 정평일, 리복남소속구분대를 비롯한 부대의 전체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5월 1일 경기장을 천년, 만년이 흘러도 영원히 빛을 뿌릴 만년대계의 창조물도 훌륭히 일떠세울것을 엄밀하고 하후하루를 창조와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적정으로 육박하는 공격적인 기상인양 군인건설자들이 펼치는 합력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이곳 건설장에 울려 퍼지는 벽간 숨결에서 노래소리가 높은 곳에 반드시 혁명소리가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옥같은 명언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그렇다. 시대의 정신이 뜨겁게 맥박치는 여기, 진격의 노래소리 높은 곳에 조선인민군 주영호소속부대 전투장에서 비상한 공격속도가 창조되고있고 소리지르고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근에 조국강산을 걷잡지키며 려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산물입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강화해나가는 데서 주춧돌이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앞에는

빠게 나이던 병사가 달려가 종이말이를 쫓는다. 그 하나하나의 나사구멍에 자그마한 티라도스머틀세라 정성을 바치는 군인들의 깨끗한 마음이 그 작은 세부에 그대로 비친다.

이 기세로 나가면 오늘도 200%는 문제없다면서 구분대지휘관은 안전모를 꼭 눌러쓰고 긴장한 눈빛으로 섬없이 일손을

무를 해대는 전투원들의 일손에서 불이 이는듯있다. 남달리 일솜씨가 빨라 앞서나가는 함수남동무를 가리키며 지휘관인 장영삼동무가 하는 자랑 또한 끝이 없다. 아들이며 가사지기도 전인 어머수며부러 작업장에 달려나와 일손을 잡는 그를 공사장에서 모른다는 사람이 없다 한다.

들으수록 가슴 뭉클하고 바라볼수록 불이 번쩍 나게 단숨에 일을 해내는 위훈장자들의 열정을 엿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지시라면 신안칼이 떨어지거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거나 내려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는 군관 고경학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전투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전투임무는 바다갈기용화강적대기작업을 전투부대로는 보지않는다. 그렇게 되면 15일동안에 수행하게 되었던 작업을 4일안에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4층작업장으로 우리를 이끌

어마한 조선인민군 주영호소속부대의 전투장을 찾았던 우리는 <단숨에>의 노래를 이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주는 군인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

제스룩한 해병이 데저를 뜨고 돌아오는 한 낮이었다.

경계장의 벽면에서는 수직주철발판들이 여기저기에 오르내리고 화강석재는 다듬는 마지소리, 일손을 다그치며 부르는 군인들의 노래소리가 온 건설장을 들들다놓으며 메아리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지시라면 신안칼이 떨어지거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거나 내려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는 군관 고경학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전투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전투임무는 바다갈기용화강적대기작업을 전투부대로는 보지않는다. 그렇게 되면 15일동안에 수행하게 되었던 작업을 4일안에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4층작업장으로 우리를 이끌

조선인민군 김금철소속부대에서

마다에서 모든 병사들을 무슨 일을 맡겨주어도 손색없이 해낼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노력을 다했다.

여기에서 힘을 넣은것은 신입병사때부터 품을 들으며 다기능으로 키워내자는것이였다.

이곳 지휘관들은 기능이 높고 경험이 많은 구대원들을 위주로 본격적으로 일련을 벌려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렵고 힘든 길을 스스로 택하였다.

레이를 위한 오늘에 살며 청년책임, 만년보장이 병사대중의 구호로 내뿜어주시고 계신것이였다.

신입병사들도 다기능공이 되어야 그만큼 부대의 전투력이 높아진다것이 이곳 지휘관들의 확고한 견해였다.

<군인의 직무는 서로 다를수 있지만 기술기능수준에서는 등 급차이가 있을수 없다. 최상의 질을 보장하는 병사만이 진정한 애국자이다.>

부대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며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부대지휘관들인 류화철, 최홍철동무들은 모든 구대원의 지휘관들이 신입병사들에게 들어가 작업포로배 배워주고 안목도 키워주면서 첫걸음을 내딛게 하도록 애를 썼다.

신입병사들이 직접 미장도 하게 하고 타일붙이기를 비롯한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작업과제

를 맡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작업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으로 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부단한 반복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경험과 교훈을 쌓게 하였다.

구대원들의 신입병사들이기에 단기집중경도 조직하여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부대지휘관들의 진지하고 엄격한 기술지도와 병사들의 피나는 노력은 날이 갈수록 은을 냈다.

전지불발에 의한 질검사방법, 이것은 청년책임, 만년보장의 구호를 실천으로 새겨주고 있는 이곳 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산물이다.

이 검사방법은 지금 다른 시공단위들에게 널리 도입되였다. 이 하나의 평범한 사실을 높이고 질을 찾자리에 놓고 만년대계의 건축물에 자그마한 광선의 티도 없게 하려고 아갈라를 애쓰는 부대지휘관들과 병사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수 있다.

오늘 정평일, 리복남소속구분대를 비롯한 부대의 전체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5월 1일 경기장을 천년, 만년이 흘러도 영원히 빛을 뿌릴 만년대계의 창조물도 훌륭히 일떠세울것을 엄밀하고 하후하루를 창조와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적정으로 육박하는 공격적인 기상인양 군인건설자들이 펼치는 합력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이곳 건설장에 울려 퍼지는 벽간 숨결에서 노래소리가 높은 곳에 반드시 혁명소리가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옥같은 명언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그렇다. 시대의 정신이 뜨겁게 맥박치는 여기, 진격의 노래소리 높은 곳에 조선인민군 주영호소속부대 전투장에서 비상한 공격속도가 창조되고있고 소리지르고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근에 조국강산을 걷잡지키며 려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산물입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강화해나가는 데서 주춧돌이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앞에는

빠게 나이던 병사가 달려가 종이말이를 쫓는다. 그 하나하나의 나사구멍에 자그마한 티라도스머틀세라 정성을 바치는 군인들의 깨끗한 마음이 그 작은 세부에 그대로 비친다.

이 기세로 나가면 오늘도 200%는 문제없다면서 구분대지휘관은 안전모를 꼭 눌러쓰고 긴장한 눈빛으로 섬없이 일손을

무를 해대는 전투원들의 일손에서 불이 이는듯있다. 남달리 일솜씨가 빨라 앞서나가는 함수남동무를 가리키며 지휘관인 장영삼동무가 하는 자랑 또한 끝이 없다. 아들이며 가사지기도 전인 어머수며부러 작업장에 달려나와 일손을 잡는 그를 공사장에서 모른다는 사람이 없다 한다.

들으수록 가슴 뭉클하고 바라볼수록 불이 번쩍 나게 단숨에 일을 해내는 위훈장자들의 열정을 엿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지시라면 신안칼이 떨어지거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거나 내려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는 군관 고경학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전투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전투임무는 바다갈기용화강적대기작업을 전투부대로는 보지않는다. 그렇게 되면 15일동안에 수행하게 되었던 작업을 4일안에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4층작업장으로 우리를 이끌

어마한 조선인민군 주영호소속부대의 전투장을 찾았던 우리는 <단숨에>의 노래를 이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주는 군인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

제스룩한 해병이 데저를 뜨고 돌아오는 한 낮이었다.

경계장의 벽면에서는 수직주철발판들이 여기저기에 오르내리고 화강석재는 다듬는 마지소리, 일손을 다그치며 부르는 군인들의 노래소리가 온 건설장을 들들다놓으며 메아리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지시라면 신안칼이 떨어지거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거나 내려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는 군관 고경학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전투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전투임무는 바다갈기용화강적대기작업을 전투부대로는 보지않는다. 그렇게 되면 15일동안에 수행하게 되었던 작업을 4일안에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4층작업장으로 우리를 이끌

조선인민군 김금철소속부대에서

마다에서 모든 병사들을 무슨 일을 맡겨주어도 손색없이 해낼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노력을 다했다.

여기에서 힘을 넣은것은 신입병사때부터 품을 들으며 다기능으로 키워내자는것이였다.

이곳 지휘관들은 기능이 높고 경험이 많은 구대원들을 위주로 본격적으로 일련을 벌려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

우리는 그 어떤 양보나 협도 모른다

우리가 전쟁역력을 강화하는데 대하여 몹시 배아파하는 세력들이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다.

미국의 고위인물들은 적하면 《북조선의 핵위협》이 미국본토뿐 아니라 세계를 흔란해 빠뜨릴 수 있다는 소리를 넘쳐넘어치기 위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니니, 핵을 포기하여야 대화도 있고 조미판개건도 있다니니 뭐니 하면서 그 무슨 비핵화조건에 대해 운운하고 있다.

한편 추종세력들도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가사를 떠는가 하면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포를 소리도 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국제무대에서 마치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소동을 피우는것은 전쟁역력을 더욱 강화하는 우리에게서 양보나 타협을 바라는 어리석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방향을 내포한 1993년 6월 6일 제정된 헌법에서 조선반도정세와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된 현실적요구로부터 제정된 전략적로선이다.

최근 조선 우리 당은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려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담하고 혁신적 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제건설에 주력하면서 우리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나라의 평화적위협을 견고히 남강조적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세계결의》를 조작하여 주권국가로서 용량 가져야 할 합법적인 위생발사권까지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책으로서 제 3차 지하핵실험을 진행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이것을 트집잡고 더욱 광기를 부리면서 보다 강도높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세계결의》를 조작해냈다. 내외조선세력들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전략공격무기를 비롯한 최첨단무기와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며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 결국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의 평화적노력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고 침착한 대책투쟁을 동반하게 되었다.

현실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다같이 밀고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핵무력강화를 떠나 경제건설을 더욱 강화하는 우리에게서 양보나 타협을 바라는 어리석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방향을 내포한 1993년 6월 6일 제정된 헌법에서 조선반도정세와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된 현실적요구로부터 제정된 전략적로선이다.

최근 조선 우리 당은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려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담하고 혁신적 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제건설에 주력하면서 우리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나라의 평화적위협을 견고히 남강조적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세계결의》를 조작하여 주권국가로서 용량 가져야 할 합법적인 위생발사권까지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핵보유국으로 된 우리 나라를 알았지 않고서는 다른 대국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할 수 없다는데로부터 미호전세력들은 최후발악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해 보자고 음모로 양로 책동하고있는것은 이와 판연하다.

우리의 전략적로선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할 수 없다는데로부터 미호전세력들은 최후발악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해 보자고 음모로 양로 책동하고있는것은 이와 판연하다.

지난 기간 제국주의자들은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고 핵억력을 발휘하려는 나라들을 군사적대립과 경제체제로 위협공갈하고 경제원조와 관계회복을 운운하면서 회유기만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수법은 흔히 해당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포기하게 강요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상대방의 무장을 해체하고 손쉽게 제압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그를 위한 미끼는 만약 자위적국방력을 포기하면 깜짝 놀랄 원조를 준다는것이다.

반제비만을 지향하던 나라들에 대하여 서방세력들은 군사력증강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걸으면 부흥시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사랑방선로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포위환형성시도를 배격하였다.

그는 미행정부가 로씨야의 정책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서방 나라들에 대한 자국의 지배적 위치를 리용하여 이 나라들이 로씨야를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의 전략적로선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할 수 없다는데로부터 미호전세력들은 최후발악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해 보자고 음모로 양로 책동하고있는것은 이와 판연하다.

우리의 전략적로선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할 수 없다는데로부터 미호전세력들은 최후발악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해 보자고 음모로 양로 책동하고있는것은 이와 판연하다.

우리의 전략적로선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할 수 없다는데로부터 미호전세력들은 최후발악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해 보자고 음모로 양로 책동하고있는것은 이와 판연하다.

한 미국과 나토의 공습, 2003년 3월의 이라크전쟁, 2011년의 리비아사태 등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가.

발칸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미국은 유고슬라비아가 요즈보에 있는 특수군을 철수하도록 압박하고 그 자리를 요즈보군이 차지하도록 한 다음 요즈보사태를 제자 일시키고 이 나라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다. 이라크전쟁개시전에도 미국은 이 나라의 무장장비에 수 주력을 이루고있던 미사일들을 비롯한 군사시설들을 이라크사람들 자신이 파괴하도록 하고는 전쟁을 도발하고 단숨에 먹여치웠다.

리비아를 오래전부터 눈에 든 가지처럼 여겨오던 미국은 이 나라가 수십년간 추진해오던 핵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나토성원국들을 부추겨 과도식력적으로 초토화하였다.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의 핵무장체제와 제도적보유를 비적으로 고착한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전쟁과 핵전쟁을 일으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핵보유를 법적으로 고착한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전쟁과 핵전쟁을 일으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물론 핵군축은 의연히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하고도 긴박한 문제로 되고 있다.

최근 조선반도정세와 세계적인 핵군축의 압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위협공갈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인도네시아신문 글 게재

인도네시아신문 《메부블리카》가 얼마전 《선군명장과 사회주의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어찌지 못하는 자국의 강국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로 되고 있다. 이 놀라운 현실을 김정은 각하를 떠나 생활을 감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선의 지상목표라 표현된 공공연히 벌리는것으로 대답하셨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 핵전쟁을 피할 수 없는것으로 여겨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어찌지 못하는 자국의 강국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로 되고 있다. 이 놀라운 현실을 김정은 각하를 떠나 생활을 감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보천보의 불길》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보천보전승리 77돐을 맞으며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극위원회가 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천보의 불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7년 6월 4일에 조직행하신 보천보 전투에 대하여 상세히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보천보전승리는 당시 아시아의 《세화》로 간주하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기를 꺾어놓은 일대 사변이었다.

일제는 비명을 질렀으며 조선

국내를 물론 세계 많은 나라의 출판보도물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연극공작전의 승리를 대서특필하였다.

보천보의 불길은 조선인민에게 조국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싸우면 반드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안겨준 민족재생의 서광이었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장군을 민족의 명수로, 민족재생의 구세주로 높이 모시면서 그이께서 조선해방의 날을 반드시 안아오시리라고 굳게 확신하였다. 마침

내 조선인민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보천보의 불길은 총대로 혁명을 개척하고 전진시키려는 조선 혁명가들의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힘입게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쳐서 제국주의권력세력의 압살행위를 단호히 물리치고 조선의 사회주의를 수호하였다.

조선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일영도자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조선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일영도자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조선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일영도자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조선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일영도자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조선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일영도자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조선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일영도자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조선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일영도자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조선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일영도자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조선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일영도자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조선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일영도자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미국의 포위환형성시도 배격

로씨야대통령 올라지미르 푸틴이 최근 포스트소스정보도수단들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포위환형성시도를 배격하였다.

그는 미행정부가 로씨야의 정책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서방 나라들에 대한 자국의 지배적 위치를 리용하여 이 나라들이 로씨야를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철폐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인민들이 자원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데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7일 한 연설에서 인민들이 자원의 주인으로 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짐바브웨의 토지와 광물자원은 100% 인민들의 수중에 장악되어있고 하면서 그는 인민

들이 힘과 창조적능력을 조직동원하여 나라의 자원부원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판대한 명토와 자원은 짐바브웨인민들의 것으로서 인민의 리익을 위해 리용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판대한 명토와 자원은 짐바브웨인민들의 것으로서 인민의 리익을 위해 리용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판대한 명토와 자원은 짐바브웨인민들의 것으로서 인민의 리익을 위해 리용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판대한 명토와 자원은 짐바브웨인민들의 것으로서 인민의 리익을 위해 리용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판대한 명토와 자원은 짐바브웨인민들의 것으로서 인민의 리익을 위해 리용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판대한 명토와 자원은 짐바브웨인민들의 것으로서 인민의 리익을 위해 리용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판대한 명토와 자원은 짐바브웨인민들의 것으로서 인민의 리익을 위해 리용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판대한 명토와 자원은 짐바브웨인민들의 것으로서 인민의 리익을 위해 리용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판대한 명토와 자원은 짐바브웨인민들의 것으로서 인민의 리익을 위해 리용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판대한 명토와 자원은 짐바브웨인민들의 것으로서 인민의 리익을 위해 리용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판대한 명토와 자원은 짐바브웨인민들의 것으로서 인민의 리익을 위해 리용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판대한 명토와 자원은 짐바브웨인민들의 것으로서 인민의 리익을 위해 리용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판대한 명토와 자원은 짐바브웨인민들의 것으로서 인민의 리익을 위해 리용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당사업발전노력

중국에서 당사업발전에 힘을 넣고 있다.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은 《중국공산당 당사업발전에 관한 세칙》을 인쇄발행하고 각 지역과 부문들에서 당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통지문을 하달하였다.

통지문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속에서 조직지도도를 강화하고 세칙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짜고들며 그들의 책임을 높임으로 당사업발전의 과학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속에서 조직지도도를 강화하고 세칙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짜고들며 그들의 책임을 높임으로 당사업발전의 과학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속에서 조직지도도를 강화하고 세칙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짜고들며 그들의 책임을 높임으로 당사업발전의 과학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속에서 조직지도도를 강화하고 세칙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짜고들며 그들의 책임을 높임으로 당사업발전의 과학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속에서 조직지도도를 강화하고 세칙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짜고들며 그들의 책임을 높임으로 당사업발전의 과학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속에서 조직지도도를 강화하고 세칙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짜고들며 그들의 책임을 높임으로 당사업발전의 과학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속에서 조직지도도를 강화하고 세칙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짜고들며 그들의 책임을 높임으로 당사업발전의 과학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속에서 조직지도도를 강화하고 세칙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짜고들며 그들의 책임을 높임으로 당사업발전의 과학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속에서 조직지도도를 강화하고 세칙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짜고들며 그들의 책임을 높임으로 당사업발전의 과학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속에서 조직지도도를 강화하고 세칙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짜고들며 그들의 책임을 높임으로 당사업발전의 과학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속에서 조직지도도를 강화하고 세칙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짜고들며 그들의 책임을 높임으로 당사업발전의 과학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속에서 조직지도도를 강화하고 세칙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짜고들며 그들의 책임을 높임으로 당사업발전의 과학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속에서 조직지도도를 강화하고 세칙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짜고들며 그들의 책임을 높임으로 당사업발전의 과학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속에서 조직지도도를 강화하고 세칙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짜고들며 그들의 책임을 높임으로 당사업발전의 과학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당원들속에서 조직지도도를 강화하고 세칙에 대한 학습과 선전을 짜고들며 그들의 책임을 높임으로 당사업발전의 과학적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작성할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은 광물자원개발에 광범한 근로자들을 적극 인입시키고 광물생산과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둔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은 2015년에 완성되어 실시될것이라 한다. 광물은 이 나라의 주요수입원천으로 되고 있다.

온실 가스 방출을 막기 위한 조치

라다정부의 최근 온실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산업을 판매하고 황폐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정연한 신진체계를 세우고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황시적으로 감시통제할데 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라다정부의 최근 온실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산업을 판매하고 황폐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정연한 신진체계를 세우고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황시적으로 감시통제할데 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라다정부의 최근 온실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산업을 판매하고 황폐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정연한 신진체계를 세우고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황시적으로 감시통제할데 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라다정부의 최근 온실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산업을 판매하고 황폐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정연한 신진체계를 세우고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황시적으로 감시통제할데 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라다정부의 최근 온실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산업을 판매하고 황폐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정연한 신진체계를 세우고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황시적으로 감시통제할데 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라다정부의 최근 온실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산업을 판매하고 황폐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정연한 신진체계를 세우고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황시적으로 감시통제할데 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라다정부의 최근 온실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산업을 판매하고 황폐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정연한 신진체계를 세우고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황시적으로 감시통제할데 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라다정부의 최근 온실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산업을 판매하고 황폐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정연한 신진체계를 세우고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황시적으로 감시통제할데 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라다정부의 최근 온실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산업을 판매하고 황폐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정연한 신진체계를 세우고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황시적으로 감시통제할데 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라다정부의 최근 온실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산업을 판매하고 황폐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정연한 신진체계를 세우고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황시적으로 감시통제할데 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라다정부의 최근 온실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산업을 판매하고 황폐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정연한 신진체계를 세우고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황시적으로 감시통제할데 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라다정부의 최근 온실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산업을 판매하고 황폐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정연한 신진체계를 세우고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황시적으로 감시통제할데 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라다정부의 최근 온실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산업을 판매하고 황폐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정연한 신진체계를 세우고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황시적으로 감시통제할데 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